

仏蘭西建築의 어제와 오늘

L' Architecture d'hier et d'aujourd'hui en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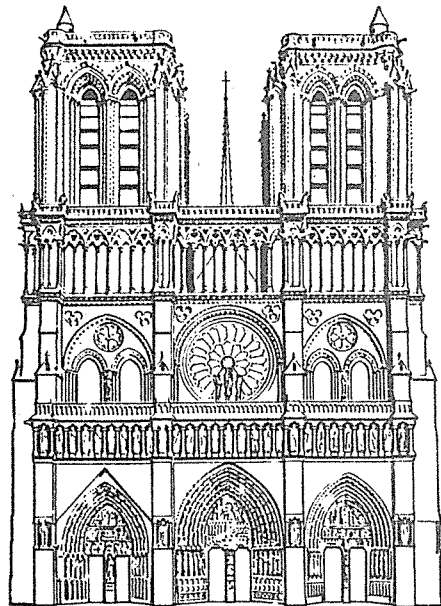
朴 胤 成

여기서 佛蘭西建築을 생각함에 있어서 建築작품을 하나 하나 列挙하면서 有名한 建築家와 作品을 爲主로 하는 建築家 相의 어제와 오늘의 變遷過程을 論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建築表現을 위한 一般的이고도 共通的인 問題에 대하여 建築家들의 職業的인 尺度와 建築生産方式에 따르는 建築家의 活動半徑이 如何하였던가에 對하여 過去와 現在의 姿勢를 생각해 보고 이에 따르는 將次的 建築家を 育成하는 教育의 方向을 어떻게 模索하고 있느냐 하는데에 그 焦點을 두고 살펴보고져 하는 것이다. 勿論 이 글은 主로 Paris의 五年制 建築大學에서 兪刑한 1974~1975年度版의 판프렛트와 其他 參考文獻에 의거하면서 本人이 佛蘭西에서 經驗하고 느낀 小感도 아울러서 加味시키면서 이글을 展開시키고져 하는 것이다.

建築狂과 建築家

우리가 Paris를 中心으로 하는 佛蘭西旅行을 통하여 보면 數 많은 石造의 教堂 및 城館(Château)의 記念建築을 巡訪하게 되는 것이 觀光코스의 依例之事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古風어린 石造의 教堂建築들은 中世紀에 이미 數百萬 Ton의 돌을 採掘하여 약 600個所의 大聖堂과 大教堂建築들을 建立한 것으로 그 石造建築의 Boom은 中世紀에 이룬 것이 建築歷史를 통하여 明白히 알 수 있는 것이나 더욱이 佛蘭西의 都市나 地方을 막론하고 周圍에 石山을 손쉽게 發見할 수도 없는곳에 石造建物이 發達되고 있는 것과 좋은 對照는 우리 韓國의 경우 서울을 爲始하여 地方어디서나 周圍에 石山을 얼마든지 發見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木造建物만이 歷史的遺物로 남겼다는 現象은 웃어서 넘길수 없는 ironical한 事實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建築을 專攻하고 建築話動을 專門적으로 하는 愛稱으로서 所謂 建築家(Architecte)라고 부르는 것이 一般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나 職業的인 建築家란 愛稱以前에 Batisseur라는 말은 冊字를 통하여 筆者: 高麗大學校 教授, 工學博士



석조건축인 노트르담寺院

다던가 現場에서도 곧잘 들을 수 있는 諺말로서 中世紀로부터 使用하여 온 建築에 從事하는 사람의 뜻인 것이다. 이것은 아주 興味있는 말로서 이것을 辭典에 의하여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建築狂”이라는 뜻인 것이다. 이것은 勿論 宗教的인 修道者團體의 發展과 그 教會歷史와 密接하게 連結지워지는 것이기는 하나 過去의 佛蘭西의 石造建築을 計劃하고 設計하고 建立한다는 過程에서 完全히 建築에 대하여 미치광이가 되어 宗教的인 信仰과 더불어 일에 熱中하여 奉仕를 한다는 見地에서 나온 말로서 建築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熱中한다는 것이 얼마나 多幸한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所謂 부르고 있는 建築家라는 이 自体도 奉仕活動을하여 社会的인 待接을 받는 것이 爲主이나 어디까지나 이 建築家라는 것이 하나의 職業的인 性格을 띠고 있고 職業的인 面을 無視하고 옛 修道者와같이 奉仕만을 생각하기는 어려운것임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建築을 專門으로 하는 建築家들이 自己들의 社会的인 位置를 옹호하기 위하여 性格의으로 다른 建築家協會를 各己 構成

시키어서 各自의 다른 見解와 利益을 保障하기 위하여 成立시키어 오고 있었던 터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1940年 12月 31日 佛蘭西의 Ecole des Beaux Arts出身들이 構成한 協會에 의하여 建築家들이 提唱한것을 Bordeaux의 建築家協會會議에서 採択한 Guadet의 規準은 建築家の 職業的인 義務를 文書로 作成하여 法的으로 規定지은 것으로서 하나의 建築家活動에 特記的인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法的인 規準의 精神은 어디까지나 社會의 支配的이고 指導的인 位置에 있는 階層에 의하여 建築家가 遂行해야 할 職業的인 義務를 지닌 規準의 設定이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價値있는 體系에서 應하게 需要請한 것이었다.

建築家の 職業的인 過去の 諸尺度

Guadet의 法的인 規準은 恒常 建築가들에게 勇氣를 북돋아 줌으로서 建築家로서의 하나의 自由로운 職業을 行使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建築活動을 통한 모든 建築技術者들에게 까지도 역시 就業의 獨立性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建築家の 活動은 建築主에 대한 奉仕가 생기어 나고 이러한 奉仕的인 活動은 本質的으로 興味로 왔고 道德的으로도 깨닫는 것이었고, 여기에 對한 對價는 贈與의 形式으로 이루어졌으며 建築主가 建築家에게 주는 謝禮는 어디까지나 奉仕에 對한 充分한 感謝의 表示로서 履行되어온 것이었다. 따라서 建築家の 社會的인 位置는 社會的인 尺度에서 볼 때 嚴然히 社會의 特權的인 水準에 位置하고 있는 傾向을 造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建築家の 活動은 都市의 創造的인 役割을 主導하는 큰 貢獻을 하여왔고 建築家の 活動이 또한 社會的인 奉仕라는 概念에 親密하게 密着되어 온 것이다. 더욱이 建築家가 한件의 作品을 만드는 일을 마무리짓기 前에 새로운 注文에 應하지 않는다는 것도 Guadet의 原則에 對한 것이었다.

그리고 建築家들이 過去の 모든 活動에 대한 關心事를 重要視하고 늘 過去の 것을 들추는 것은 오직 過去보다도 더욱 現在를 더 나아가서는 將次에 대하여 自己의 職業的인 翁호를 갖기 위한 關心을 갖는다는 데에 重要性이 있는 것이었다. 또한 理想的인 建築家相이 무엇이며 果然 理想的인 建築家相이 共通的이고 一般的으로 存在하느냐 하는 問題點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共通的이고 一般的인 建築家の 理想型이 그 實現性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이러한 構想이 現實과 一致하느냐 하는 問題點 그리고 이것이 時代的인 要求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問題點도 提起되게 되는 것이다.

建築家들의 活動이 公的이고 奉仕的인 觀念이 建築家들의 職業的인 翁호에 대하여 항상 強烈한 偏見으로 作用되어서 規定지으려고 하고 番番히 公的인 觀念이 職業的인 翁호를 壓倒하며 더 나아가서는 職業的인 萎縮이 招來하여온 事實에 本質的이고도 道德的인 立場에서 理想的인 建築家相이 如何히 斷定지워져야하고 理想化 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에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의 새로운 生産方式과 建築家

建築以外的 科學的인 分野 技術的인 分野 人文科學的인 分野 등의 모든 分野가 急進的으로 變遷하여가고 發展하고 있는 現時期에 建築만이 過去の 것을 固守할 수 있는 境地에 놓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急速的인 變遷過程은 建築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勿論 最近에도 建築生産에 있어서 過去の 여러가지 斷片的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建築의 生産方式이 오늘날 本質的으로 그 樣相이 過去の 方式과 다른 方向으로 進行되어 가고 있는 現象을 看過시킬 수는 또 한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社會人들의 建築에 대한 科學的인 知識의 向上과 現代的인 技術을 驅使하고 새로운 建築材料의 出現과 새로운 建築工事方式의 開發에 의하여 社會學的인 人間要求에 副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하여 항상 建築의 居住性을 向上시키고 建築의 耐久性과 安定性을 促進시키어서 建築을 優秀하게 이끄러가는데에 있어서 항상 經濟性을 考慮한 技術的인 解決을 圖謀하는데에 建築生産方式의 現代的인 使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建築의 生産方式에 따르는 建築家들의 새로운 方向性을 몇가지 事項을 設定하여 생각해보면 아래와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建築生産工場의 一例

即:

萬若 個別的인 建築家가 個人的으로 要請하는 한 손님을 위하여 일을하고 Guadet의 規準을 위한 그의 일이 本質的이었다고 생각되는 奉仕를 行하고 아직도 이런 方式이 尚存한다고 하면, 이 손님은 반드시 作家는 不明이나 建築을 위한 大規模的인 組織團體나 國家的인 機關을 對象으로 하여 일을 부탁하고 때로는 經驗없는 建築人口의 一部分의 이름으로도 自己일의 效果를 거두기위해서 일의 要請을 試圖할 것이 予想되는 것이다.

萬若 在來와같은 建築家와 建設業者의 關係가 Guadet 時代와 같이 다시 存在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한 建築의 生産方式은 많은 複合性에 招來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建築의 産業化는 積極的으로 推進이 될 것이고, 프레화부 建築도 상당히 發達할 것이고, 財政的인 組織이 建築分野에 대하여도 많은 調停役割을 할 것이고, 財政分野의 參與度는 上昇될 것이고, 過去에 경험하지 못한 技術的인 部門의 集團的인 參與도 점점 많이 誕生하여 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建築家의 役割은 自然的으로 建築全體의 部分에서 極히 한 部分만을 擔當하게 되어갈 것이고, 여기에 또한 建築家의 役割이 建築에 있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指揮者와도 같은 位置를 굳히고 싶은 마음이 Howesick하게 항상 主張되고 要求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建築家의 活動半徑이 萎縮되고 점점 建築家의 活動은 異議를 품게되어 갈 것이다.

萬若 建築이 技術的인 知識을 가지고 創意성과 連結되는 活動이 尙存하고, 建築이 가지고 있는 主目的을 怠慢히 하지 않고 그 役割을 充分히 이행한다고 하면, 建築은 여러分野안에서 予想되는 科學的인 嚴密性으로 代置시키는 正確한 諸般科學의 知識의 寄與에 대하여 그 利益이 점점 높아 갈 것이다.

萬若 獨立된 建物에 대한 概念이 工事計劃推進을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建築家들을 위한 本質的인 職業的인 活動을 固定시킬수 있게 存在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都市와 農村사이에 놓여진 前後關係속에서 合理的인 建築生産의 効果的인 導入이 될 것이고, 地域計劃과 環境計劃의 諸問題들을 經濟的으로, 社會的으로 地理的으로, 社會生態學的인 見地에서도 다같이 생각할 수 있고, 建築이라는 태두리속에서의 創造性을 갖게하기 위하여 協力을 하는 活動體制의 構成을 하는 것이 점점 하나의 重要한 部分이 될 것이 予想되는 것이다.

結局 果然 누가 이 建築의 夙한 作業을 時代的인 概念을 넘어선 狀況에서, 社會的인 概念을 넘어선 狀況에서 그리고 政治的인 面을 넘어선 狀況에서 다시 建築家を 믿게하고 이일을 이끌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決코 建築家들을 歷史家로 만들고, 建築家들을 社會學者로 만들고, 建築家を 政治人으로 職業的인 變更를 願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모든 實情을 充分히 알고, 여러 가지의 놓여진 矛盾을 測定하고 그리고 日常生活의 水準을 把握해서 이러한 모든 結果를 가지고 建築家의 活動을 遂行해 나가는 데에 對한 努力을 위하여 再武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單純하게 要請되는 일이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形態의 建築家

새로운 形態의 建築家は 여러가지의 많은 知識을 가지고 來日을 保障할 수 있는 尺度를 알수 있고, 建築을 純粹

하게 이끄러 갈수 있는 많은 方法을 가지고 그리고 建築의 創造와 環境의 創造로 連結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의 많은 作業들도 역시 來日을 保障할 수 있는 尺度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作業은 先教育에 많은 일이 있고, 建築에 관한 새로운 情報의 獲得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予定計劃을 짜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한 概念的인 일들이 있고 그리고 實踐的인 일들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活氣를 주는 일들이 있고 決定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차지하는 位置는 建築創造를 決定짓는 競争을 할 수 있는 組織的인 體系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組織的인 體系는 教育訓練을 담당하는 곳이며, 基本的인 研究機關 혹은 技術의 研究機關이며, 實地 設計를 담당하는 設計室이고, 建築의 部品, 單位要素들을 生産하는 工場들이고, 都市 및 農村을 研究하는 그리고 勞働과 余暇를 研究하는 學的인 實驗研究室들이고 社會文化團體를 그리고 政治的이고 經濟的인 모든 集會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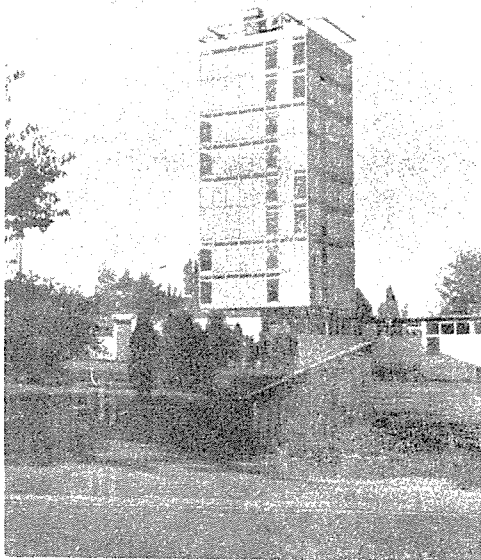
建築活動의 이런 형태는 歐羅巴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지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微弱하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이러한 分向性을 摸索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万若에 이러한 綜合的이고 有機的인 連結性을 無視하는 建築家의 活動이 個人的인 性格안에서 그리고 建築家의 活動이 個人的인 性格안에서 그리고 建築家의 專門的인 職業人으로서 職業的인 自己의 部分的인 性格을 가지고 이것을 主張 固執한다고 하면 建築의 全體的이고 綜合的인 性格은 消滅되고 마는 것이다. 建築의 機能이 上記와 같이 全體的으로 集約되고, 都市와 地方의 計劃的인 組織의 擴大化와 經濟計劃의 龐大化도 全體的이고도 綜合的으로 集約이 되고 여기에 또한 建築이라는 태두리속에서 建築生産의 産業化過程에서도 역시 集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더욱이 住宅, 아파트建設에서 그리고 모든 設備와 施設面에서 점점 그 重要性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佛蘭西를 위시하여 英國, 和蘭 그리고 其他 歐羅巴 諸國에서 그 重要性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住居內容에 있어서 公的인 部門의 活動을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美國에서도 上記와 같은 方式을 取하는데에 充分치 못한 實情이란 것이다.

이러한 公的인 分野의 活動이 오늘날 自身들의 發展을 圖謀하는 傾向이 있고 만약 個別的으로 建築家が 個人的인 손님을 위하여 하나의 집을 設計하여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在來方式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建築의 大規模的인 會社의 形式으로 發展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大會社는 역시 地域計劃的인 立場과 超高層化建物의 機械的인 設備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놓여진 모든 많은 일을 이끌어 나가는 可望性和 모든 分野의 專門家들 사이에서 再結合을 하고 再會合을 가지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佛蘭西를 위시한 歐羅巴諸國들은 都市 및 地方의 計劃的인 組織化를 內容으로 하는 여러가지의 公的인 혹은 私

의인 組織體들의 發展과 그 役割이 여러가지의 技術研究를 위한 事務所들의 增加를 招來하였고 점점 顯著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建築의 傾向과 여러가지의 産業化 方法에 의한것이 建設分野속에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部分을 增加시키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建築의 合理的이고 現代技術을 驅使한 工事方式의 計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는 住居內容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住宅·아파트의 綜合的인 研究傾向에 있어서 그 研究組織이 國家的인 次元의 水準에서 그 機構를 構成시키고 있는 것이다. 佛蘭西의 C. S. T. B. (Centre scientifique et technique du Bâtiment)는 그 좋은 例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佛蘭西와 같이 個人的인 建築家의 活動과 그 地位를 尊重하고 建築의 藝術性을 높이 評價하는 등 建築에 對하여 他國에 比하여 特殊하고 多樣한 條件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不拘하고 歐羅巴의 他國에 比하여 늦기는 하지만 徐徐히 建築의 綜合的이고도 全體的인 研究의 組織體系가 國家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傾向이 上昇--路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革新的인 建築活動의 傾向은 將來 繼續性있는 關聯性을 維持하면서 職業的인 在來方式의 構造와 建築의 制限된 活動과, 古風的인 干與로 생긴 建築의 樣式들이 모두 로기될 큰 部分이 될 것으로 予想되며, 이러한 事實들은 모두 建築歷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고 博物館에서나 찾아 볼 수 밖에 없는 날이 올 것으로 予想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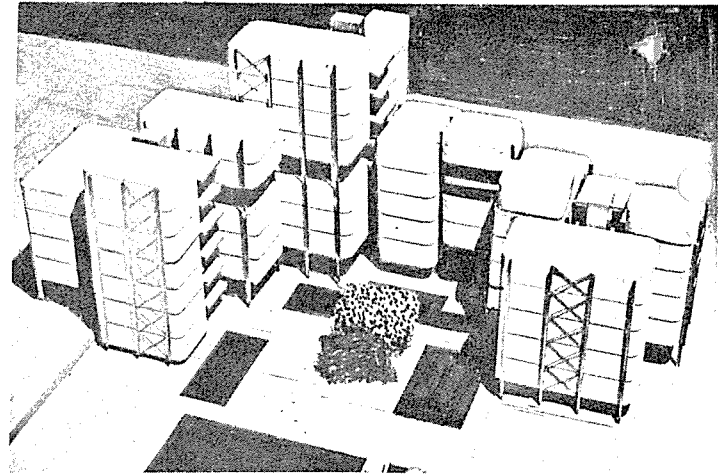
파리 郊外에 자리잡고 있는 C. S. T. B. 의 研究所 풍경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建築家가 漸進的으로 誕生할 것이고, 이 새로운 형태의 建築家는 새로운 일들을 그의 活動으로서 奉仕케 될 것이 予想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建築家 形成의 誕生, 이것은 大學의 建築科가 모든 일의 어려움에 대한 錯覺을 일으키지 않고

貢獻을 할것을 熱望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建築家가 반드시 大學의 建築科에서만 教育을 받고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專門的이고 職業的인 實社會를 통하여도 많은 建築을 生産시킬수 있고 또한 많은 貢獻을 할것이 予想되는 까닭인 것이다. 이러한 人間生活의 모든 範疇속에서 建築을 創造시키고 實社會에서 생기는 結果도 貢獻的인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새로운 建築生産方式에 의한 建物群의 一例

새로운 教育方法

專門的이고 職業的인 努力을 傾注하는 建築家의 새로운 形態가 變하여가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하였던 많은 知識이 轉換되어야 할 時點에 와서 教授와 學生들間에 놓여지는 모든 教育方法에 대하여도 本質的으로 옛 過去의 基礎를 둔 方法으로 建築이 生産되어져야 한다는 事實이 아님을 確實하게 그리고 明白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새로운 形態의 建築家로의 轉換은 새삼스럽게 다시自己自身의 位置와 力量을 測定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建築教育의 施行은 몇 個의 設計室을 附與하고, 優秀한 建築家들과 優秀한 建築技術者를 育成시키기 위한 契機으로서 學生들에게 每週 學生들이 해온 工夫에 對한 意見을 教授가 聽取하고 이에 對한 指導를 하여주고, 그리고 學生들이 直接 設計한 課題物에 對하여 校正을 하여 주면서 教育의 效果를 增進시킬려고 努力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은 教授와 學生사이를 直接 連結짓는 教育의 實施가 곧 設計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1968年 以前부터 크게 發展되어온 建築의 基本的인 樣相을 構成시키는 여러가지의 科學 및 技術의 教育이 現時代의 潮流와 現時代가 要求하는 水準에 뒤지지 않는 教育을 招來시키는데에 充分치는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現實은 建築教育의 革新이 要請되었고

이 革新의 時期는 早速히 到來할것이 期待되었고, 이런 機會는 必須不可欠의 것으로 認定되었던 것이다.

1968年 5月이 佛蘭西에서는 그 革新의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이 革新의 契機는 그 主軸을 이루는 方向性이 앞으로 予想되는 建築에 革新의 方向과 現實情을 參酌한 教育的인 適應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方向性의 發見이 促進되어야 한다는데에 意見을 모아왔던 것이다.

이 정도의 改革은 모든 大學에서 外部의 影響에 대하여 改造되고 開放되는 것만으로 歸着시켜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表現的이고 建築家의 思考를 陳述할 수 있는 建築의 여러가지의 傾向을 可能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建築大學은 複合的인 傾向을 가진 大學으로서 어느 他系統의 大學보다도 이러한 傾向이 先行되고 있는 것이다.

1968年以後 現行 여러가지의 科目과 學點에 새로운 設定을 하였고 學生들의 再編成과 教育內容의 再編成은 一般的으로 政策的인 面에서의 教育的인 選擇이었고 또한 이것은 建築의 方法論的인 選擇의 機能으로 성숙한 것이다.

結局 各科目과 學點은 特別한 樣相을 取하였고 建築의 教育內容의 確實한 傾向을 再現시키는 것이었다. 建築大學은 特別한 傾向을 위한 選擇을 取하였던 것이며, 이 特別한 傾向은 技術的인 것이고 아마도 技術을 基礎로 하여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는 精神的인 面에도 適合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建築大學은 또한 複合的인 傾向을 가진 性格에서, 이것들 사이에는 서로 相反되는 見地와 立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의 傾向을 가진 속에서도 同居를 可能하게 選擇하였던 것이다.

만약 環境問題의 全體的인 效果에 관하여 建築家들의 集團과 技術者들의 集團이 같은 理想과 같은 目標로서 聯合體를 構成한다고 하면 教育內容에서 서로 性格이 다른 選擇의 內容에서 建築에서 招來되는 것에 관하여 다른 方向性을 가진 속에서 共通課題인 環境問題의 發見이 可能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 다른 많은 傾向들은 教育者와 學生들에 의하여 共通되고, 상당히 많이 表現되는 關心事와 方向性을 가진 機能을 가지고 쉬우게 接近할 수 있는 內容속에서 여러 가지의 課題들의 選擇을 할 수 있는 水準에서, 이것으로 構成되는 일을 위한 몇個의 커다란 教科課程의 group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이것은 大學의 여러가지 傾向性속에서 한개의 傾向 혹은 하나의 方向性만을 선택하지 않는 學生에게 自由로운 可能性을 주는 必要性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選擇의 自由化는 그의 學問的이고 純粹한 經驗을 遂行하는 데에도 必要한 것이다.

産業時代에 있어서 建築의 經濟的이고 技術的인 樣相은 確實하게 区分된 교과과정 group속에서 特別한 待遇를 받는 것이며, 만것들은 그들의 要求에서 建築家의 專門的인 것들을 招來시키는 人間과 社會的인 樣相에 대하여도 많이 挿入시키는 것이다. 都市計劃, 都市地理, 社會生態學들은 한 group속에서 問題性을 갖고 있는 中心的인 것이다. 同時에 만것들은 또한 建築 및 都市의 生産過程에서 보여주는 方法의 참된 프로그램의 出発을 위한 試圖인 것이다.

結局 만것들中에서 하나만을 包含하지 않고 각 group에서 再現되고 되풀이 되는 傾向은 必要性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같은 것이 되풀이되지 않더라도 確實하고도 커다란 方向性이 만 group속에서 틀린 形式 밑에서 再發見될 것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은 肯定的인 것이고, 正確한 것이고, 이런 傾向은 大學의 각 group 속에 存在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根源을 發見하는 것이고, 많은 傾向은 建築家로 向하는 自由로운 開花를 可能케 하는 本質的인 存在가 되는 것이다. 물론 大學의 質的인 純粹性과 그 可能性 그리고 人間環境의 創造를 決定짓는 建築活動의 一體的인 참된 일은 革新의 契機를 通하여 좋은 結果가 招來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끝